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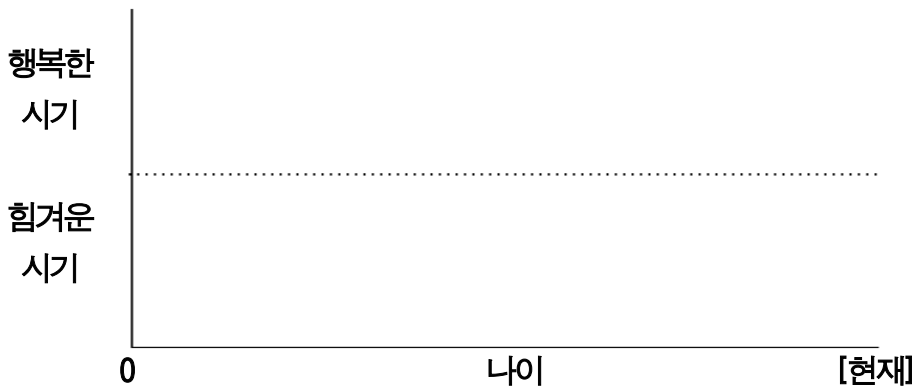
[11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음 깨기

인생의 굴곡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내 삶을 생각해보면서, 좋았던 때와 힘들었던 때의 흐름을 그려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교회행사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12월

10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경배 찬양

세상 흔들리고

1.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교

[홍성준 선교사]

미국

1. 도시 선교사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 하도록
2. 살고 있는 도시의 90%인 인도사람, 이웃의 아프칸 사람, 몽골사람, 콩고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주시도록
3. 이민 와서 무너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소식

1. 굿월센터 도즈 전시회

2023년도 굿월센터 도즈 사역(예수님의 제자들 문화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고 교회 곳곳에 전시 중입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사역지원

교육부서 교사의 자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곳입니다.

3. 사.교.시

(사실 교사 교육의 시간이 필요해) 교사 세미나 및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1/21, 28, 12/5 => 저녁 7시30분 다윗의 노래 & 12/13(수) 교사 헌신예배

한문장 큰 울림

**고난은
헛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1926-2015)
'전능자의 그늘' 저자,
에콰도르 선교사**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욥기 21장 7절)

세 친구와의 두 번째 대화 중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욥은 이에 대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더 강하나”라는 말로 응수합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고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오직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왜 더 힘든가?”

1_내 말을 좀 들어달라 (1-6절)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혹 조롱을 하더라도 다 듣고 나서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현실적 고통에는 아랑곳 않고, 전통적 인과 법칙만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알지 못하면서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으나, 친구들은 그저 머리만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논리 정연한 우리의 말보다, 그저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위로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나요?
강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2_성찰과 질문의 자리로 (7-16절)

이어 욥은, 친구들의 논리에 따른다고 할 때에도 위배되는 악인의 번영을 예시로 들면서 반박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성공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9절)의 말씀은 욥의 괴로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에게 매를 대지 않는 분?** 그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물의와 악행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 기도는 그저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큰 간극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연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기보다, 기도하고 엿드리며 그 뜻을 찾는 것, 인과응보의 일반론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나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힘들어 했던 경험이 있나요?
[나눔]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속 질문은 무엇인가요?

3_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하나님의 크심을 담기에, 우리의 인식론이라는 그릇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을 이 작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율법, 도덕, 윤리가 인간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간 손에 쥐어지는 순간 판단과 정죄의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면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악인이 더 형통할 수 있지요.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고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곧 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당한 것으로 자신의 공평과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펼쳐질 세상을 기대하며, 그 새로운 세상을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삶입니다.

[결단]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그 때에도, 다시금 따르겠습니다.